

원로 언론인, 환경 원로

박노경 선생님의 자서(自書) - 1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박노경 선생님이 친히 보내주신 원고

이달치 원고를 준비하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고 존경하는 박노경 선생님이 메일을 보내 주셨다.

이 책자에 글을 연재하는 내 노고를 치하 하시면서, 더위에 후배를 도와주실 글을 보내 주셨다.

.....
친애하는 박창근 위원장에게

.....
안녕하십니까. 〈환경기술인〉지를 보니 〈인물로 본 환경야사〉를 집필하고 계시더군요. 혹시 지난번에 쓰신 〈..야사〉를 다시 개고(改稿)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小人에 관한 예상(필요)자료를 약간 보내오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건필-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2008. 06. 15. 계암 박노경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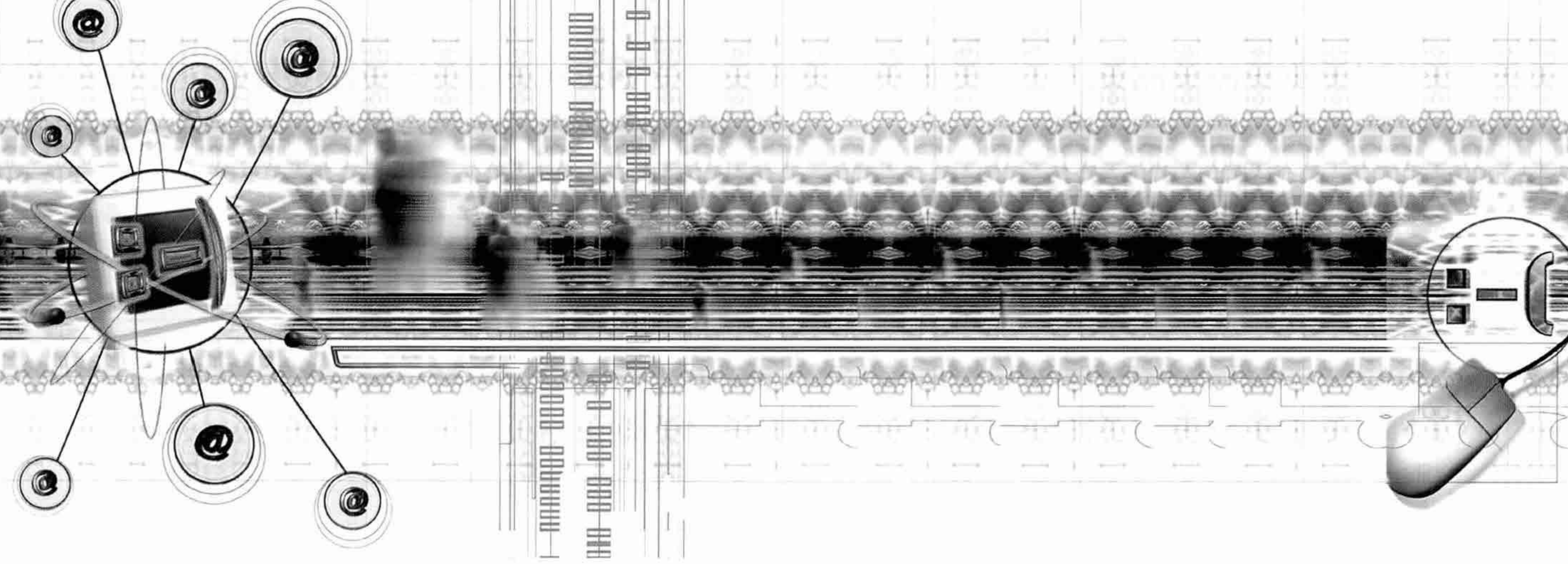
컴맹 탈출 이후

- 사이버 카페에 '환경' 詩도 올리고 -

박 노 경 (일사회 고문)

컴맹을 탈출한지도 그럭저럭 3~4년이 된 것 같다. 컴퓨터를 배웠기 때문에 그 동안 책도 두 권이나 낼 수 있었다(‘夕陽의 옴니버스’=2003년, ‘박노경의 환경수첩’=2004년). 언제든지 통합검색을 통하여 지식을 넓힐 수도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일을 통하여 노소 친

구들과의 문통(文通)도 자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름답고 유익한 글과 음악을 즐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컴퓨터는 나의 노후 시간을 행복하게, 무료하지 않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불가결의 생활필수품으로 화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운평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울 때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힘이야 좀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가장 요긴했던 것은 역시 홈페이지 교육 과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미있었던 것은 태그 공부였다. 물론 영어로 된 낯 선 명령어를 외우는 일은 특히 필자와 같은 숙련(노인) 학생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령 table이나 tr, td, center, border, font style, font size, font color, pre, img src=, embed, marquee, direction, scrollamount...등 이외에도 수많은 복합 명

령어를 외어야 하고 그것들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동영상(또는 사진)과 배경음악을 따와서 결합하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그 글이 그림위로 흐르게 하는 따위의 독창적인 태그 작품을 만들어 E-mail로 보내거나 개인 홈 페이지 또는 카페에 올리는 일은 힘든 작업이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알게 된 것이 태그의 약식 작성법이었다. 가령 어떤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편지지'를 복사해 다가 미리 마련해둔 '태그 연습장'에 부쳐 넣기를 하고 편지지 여백에다 글자 모양과 크기 및 글자 색(font style, font size, font color) 등을 선택해서 자기 글이나 좋아하는 시를 적어 넣어 태그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복사해 오는 편지지에는 대개의 경우 음악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음악 복사를 해오지 않아도 되므로 나와 같은 아마추어들에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요즘은 개정 저작권법의 발동으로 아무데나 가서 음악이나 사진 및 그림을 복사해 오기가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지난 2월16일 이전, 즉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어느 사이트에라도 들어가서 음악 사진 그림 등을 복사해 와서 감상도 하고 친구에게 보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PC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은 태그 공부 덕택이라 할 수 있다. 요즘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태그 작품을 E-mail에 실어 보내기도 하고 내가 회원이 돼있는 카페에 나의 글을 올리곤 한다. 다음의 <山河에 情을 주니...>라는 제목의 환경 시조들도 최근에 '노을의 집'이라는 카페에 올린 태그 작품이다. (C)



1989년 권숙표 박사님(중앙)과 필자(박창근 왼편)가 'Global 500'에 선정되어, 1987년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된 박노경 선생님(오른편)과 모임을 갖기로 한 첫 기념사진.

※ 지면 상 이어지는 시와 글은 다음 호에 소개한다.